

쾌적한 도시환경 · 여가활동 공간 제공

익산 중심권역 주민숙원사업 해소... 장기미집행시설 소라공원 공원조성사업 추진

익산시는 "장기미집행시설인 익산 소라공원 208,428㎡를 LH와 함께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12일 오전 11시경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소라공원은 1967년에 지정되어 50년 동안 공원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생활 중심권인 남중동, 신동, 영등동 주민들의 공원조성 요구 민원이 수년간 지속된 실정이다. 익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한 정책사업과 연

계 작년부터 국가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소라공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였고 공원조성을 위한 "공공지원민간투자사업(공공투자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올 초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해 현장 실사 후 지난 2월 19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라공원 조성 사업제안을 수용 결정하였으며, 익산시에 3월 9일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등을 요청(공문 접수)한 상태이다.

본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추진되며 공원부지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30%는 비공원시설로 개발되는 방식으로, 익산시는 소라공원 지구 지정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를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월 12일부터 14일간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며, 관계기관 협

의절차를 이행 후 2019년 공사 착수하여 2021년 완공 목표로 공원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재정 부담 없이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 및 현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그간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지난 10일 원광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일모도원' <갈 길 길은 먼데 하는 저물고>의 저서를 발간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정현을 익산시장, 출판기념회 성료

정현을 익산시장은 "일모도원' <갈 길 길은 먼데 하는 저물고>의 저서를 발간하여 출판기념회를 지난 1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원광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숨 가쁘게 달려온 2년, 여기서 멈출 순 없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를 비롯한 정동영, 유상연, 김광수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김도중 원광대학교 총장 등 익산시민 약 6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출판기념회를 성료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내빈들의 축사와 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 등 순

서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정 시장은 "이 저서에서 익산시장을 맡으면서 2년간 자신이 해결한 현안들과 적폐를 해결하고 주민숙원 사업을 유치와 익산시플랫폼 2단계 사업 추진 등 새로운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4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익산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피력했으며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는 '2017 한국관광의 별' 관광매력을 분야에 선정된 군산시간여행마을과 전북투어패스를 연계해 관광 상품을 선보인다.

관광객에 다양한 혜택 · 풍성한 즐거움 선사

군산시간여행마을 전북투어패스 연계 관광상품 출시

군산시가 '2017 한국관광의 별' 관광매력 분야에 선정된 군산시간여행마을과 전북투어패스를 연계해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할 다양한 관광상품을 선보인다.

기존에 전주 한옥마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전북투어패스 한옥마을권을 군산시간여행마을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연계 상품을 출시하고, 4월부터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진포해안케마공원 등 근대역사지구의 5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대역사문화권을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이에 2017 한국관광의 별 스마트관광 정보분야로 선정된 전북투어패스의 다양한 혜택과 함께 시간여행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욱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전북투어패스를 소지한

관광객에게 다양한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151개소 가맹점 외에 관광서비스 분야(맛집, 숙박, 제과, 체험점 등) 특별한 가맹점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된 특별한 가맹점은 전북투어패스 공식 홈페이지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다각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서비스 교육과 업체 점검을 통해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된다.

전북투어패스 특별할인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관광서비스 분야 업체는 군산시 관광진흥과(☎454-333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군산시간여행마을과 전북투어패스를 연계한 관광 상품으

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투어패스는 카드 한 장으로 ▲전북 14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 60여개 유료시설 무료 이용 ▲전라북도 시내버스 무료 이용(1일권 5회, 2일권 8회 3일권 11회 이내) ▲도내 30여개 공영주차장 최대 2시간 무료 이용(추가요금 별도) ▲1,000여개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공연장 각종 체험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www.jtourpass.ir), 쿠팡·인터파크·옥션·티몬 등 인터넷 쇼핑몰과 도내 관광안내소 및 주요관광시설에서 구입 가능하며, 근대역사박물관, 금강철새조망대, 선유도 스카이리조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한화에너지,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 체결

군산시가 12일 한화에너지 군산공장(공장장 주선태)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8년 희망나눔 지역복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화에너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기업정신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4,500만 원을 지원해 사회복지관 급식봉사, 소외계층 아이들과의 나눔, 월명산 나무심기 활동, 김장김치 담그기, 연탄 나눔 등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학습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계층 이동을

위한 공부방 꾸미기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내 활동공간 개선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카울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주선태 한화에너지 군산공장장은 "흔치않은 빨리 보다는 함께 멀리 라는 사회공헌활동의 철학을 원칙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로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스탬프 투어 서포터즈단 21일까지 모집

군산시는 스탬프 투어를 직접 체험하며 관광명소와 시간여행축제 등을 소개·홍보할 '군산 스탬프투어 서포터즈'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스탬프투어 서포터즈는 서포터즈 참여자가 직접 체험을 하며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홍보효과를 높여 군산 스탬프 투어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탬프투어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군산시 스탬프 투어를 직접 체험하고 매월 평가를 통해 우수 콘텐츠로 선정되면 원고료 지급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포터즈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21일까지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관광진흥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skywoods72@korea.kr)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풍화경 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www.jmaeil.com